

코로나19 연쇄 감염 차단 만전

장수군, 확진자 발생에 관계자 등 검사 결과 전원 음성... 방역소독·공공 시설물 휴관

장영수 군수는 26일 군청 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 담화문을 긴급 발표하고 행정력을 총 동원해 연쇄 감염 및 집단 감염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 잠정지역으로 지켜내기 위해 그간 군민과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전주시 624번 확진자와 함께 근무해 격리 중이던 지역 주민이 지난 25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장수군 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가 발생한 당일 장수군은 즉시 군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상황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시설 종사자 등 관계자 44명과 밀접 접촉자 13명에 대해 검사를 완료했으며, 검사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 근무한 전주 624번 확진자와 장수 2번 확진자의 역학 조사를 실시한 상태며, 확진자가 자택 및 방문한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소독을 즉시 실시 완료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사항과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긴급재난문자로 발송, 군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군은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연쇄 감염 및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해 관내 복지·체육·문화 등 공공 시설물 41개소를 모두 휴관 조치했다.

주요 시설물은 장수군장애인복지관,



장수군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긴급브리핑을 가졌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장수군노인복지관, 경로당(277개소), 작은목욕탕(장수·산서), 장수군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6개소), 체육관, 벽계정, 자연휴양림(외릉·방화동), 장수누리파크, 대곡관광지 등이다.

군은 현재 선별진료소 및 상담실, 방역상황실을 24시간 동안 가동하며 관내 해외 입국자 및 의심 증상자, 격리자 등을 관리하고 있다.

또 검체·해위입국자 수송 및 임시 거주시설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공공시설물 방문객 명부 작성 및 주기적인 방역 소독, 자가 격리자 및 전담공무원 24시간 모니터링 관리, 청정장수

생활속 거리두기 육내 마을방수 일 2회 이상 실시,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서 및 우관기관 방역물품 배부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청정장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은 추가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에 방역 및 군민 방역 수칙을 준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들이 스스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것이 최고의 감염 예방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장수형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75세 이상 백신 예방접종 실시

무주군, 당초 계획보다 하루 앞당겨 28일부터

무주군은 오는 28일부터 무주읍 소재 무주예체문화관 1층 다목적홀에서 75세 이상(1946.12.31.이전 출생~ / 4,134명)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접종자 - KF마크 착용, 신분증 지참 필수)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75세 이상 접종은 오는 6월 30일까지(1차 접종 후 3주 후 2차 접종) 실시할 예정으로, 18~64세는 오는 7월 1일부터 접종이 진행된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읍면별 버스들을 운행시켜 대상자들을 수송할 계획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이동훈 과장은 "신속하고 안전한 예방접종을 진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센터 설치와 함께 의료진과 행정요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3차에 걸친 모의훈련과 점검을 실시하는 등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며 "무주군민 1만7,000여 명에 대한 접종이 모두 끝나는 11월까지의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접종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일 예방접종센터(운영 08:00~17:00 / 접종 08:30~16:00)에는 의사와 간호사,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4명이 투입될 예정으로 입구에서 대상자 신원확인 후 예진표 작성과 예진, 접종, 전산등록,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주군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지난 3월, 6개 읍면 순회 홍보활동"무



무주군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주군 예방접종 이렇게 추진됩니다")을 받으며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추진사항들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운영 장비와 비품 비치 등 예방접종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6일과 19일 단계별 역할 수행과 체커리스트를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20일에는 전라북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개선했다.

한편, 5월부터는 65~74세의 주민과 장애인 돌봄 종사자, 노인 방문 돌봄 종사자,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1~2학년)교사를 비롯해 만성 신장 질환자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의료가 및 약국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할 예정이다.

무주읍과 설천면 소재 의탁의료기관 5곳(무주읍 노급석외과, 임형래내과, 고려외과 / 설천면 성모외과, 한양가정통계의원)에서 진행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의회,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진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26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 4명을 위촉하고,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2020회계연도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한다.

대표위원에 김민규 진안군의회 의원이 위촉되었고 전 진안군청 공무원인 성양호 위원, 하태식 위원, 서기태 위원이 각각 위촉됐다. 위임들은 지난해 세입·세출의 결산, 명시·사고이월비 및 채권의 결산, 재산 및 기금 결산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건전성과 효율성을 검사할 계획이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민규 의원은 "예산편성 및 집행과 더불어 결산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결산검사를 통해 진안군이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면밀하게 검사해 군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체제형 가족실습 농장 교육생 간담회 가져

무주군이 무주군에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은 지난 23일 귀농귀촌협의회 회원과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과 간담회 및 현장 견학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과 교육생 30명은 적상면 김화자, 무풍면 서선아, 최주영 씨의 농장을 차례로 둘러 무주군에 귀농귀촌 배경 및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한 노하우 등 귀농귀촌 실행단계에서 꼭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토론하는 등 알토란 같은 간담회를 체험했다.

특히 이들 선배 귀농·귀촌인들은 모두 도심에 거주하다 몇 년 전부터 군에 정착하면서 사실상 귀농귀촌에 성공한 주인공들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안질환·만성콩팥병 검사비 지원

진안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는 26일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군민에게 안과합병증(망막증)과 만성콩팥병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병 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콩팥병과 망막증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병으로, 합병증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합병증 검사비 지원 대상은 만 30세 이상의 진안군민으로 관내 1차 의료기관 또는 각 면의 보건지소에서 고혈압·당뇨병으로 등록된 환자로, 보건소에서는 만성콩팥병과 망막증 검사비를 환자 1인당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근거 마련

지원 관련 조례 개정으로 경영 안정·피해복구 위한 자금 지원 가능

무주군이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이번 제283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지원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피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서 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3등급 이하에서 전 등급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를 보면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예신의 범위

에서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담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5월말 이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7월 이후에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상형 산업경제과장은 "지역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무주사랑상품권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6월까지 일시 상향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미중몰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행정협의회 구성 첫 회의 가져

진안군은 26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진안군 푸드플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한 먹거리 실천과제 발굴을 위해 군청 상황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푸드플랜'은 지역 먹거리의 생산, 가공·유통, 소비 등을 선순환 체계로 묶어 군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친환경 기획생산, 취약계층을 위한 먹거리 복지 확대, 환경보호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군은 푸드플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나혜수 부군수와 농촌경제국장을 중심으로 실과소의 19개부서의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복지, 위생 등 업무 관련 팀장으로 이루어진 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진안형 푸드플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